



# 광림 뉴스레터

## KWANGLIM NEWSLETTER



## 하나님이 세우고 받으시는 성전으로 복음의 역사 이루라

5월 4일 <동탄광림교회> 기공예배 드려

2022년 5월 4일(수) 11시, 경기도 화성시 목동 동탄2신도시에서 동탄광림교회 기공예배를 드렸다.

동탄광림교회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500여 평의 교회로 내년 4월 완공 후 봉헌 될 예정이다. 지하 1층에는 300석 규모의 대예배실과 자모실, 1층에는 주차장과 로비가 들어선다. 2층에는 애찬관과 다목적실, 행정실, 3층에는 소예배실과 4개의 소그룹실을 만들어 성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친교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설계되었다.

또 옥상에는 주위 녹지 환경과 어울리는 초화류를 식재할 예정이다.

이날 기공 예배에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음의 확장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고, 여선교회성가대는 축복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세워진 성전'(삼하 24:18~25)이라는 말씀으로 "2015년 이 성전 터를 마련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는데 이렇게 큰 신도시가 형성되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계획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솔로몬 성전 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이다. 동탄광림교회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고, 회생과 헌신위에 기도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받으시는 성전이 되길 기도한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단을 기뻐 받으신 것 같이 동탄 성전도 화목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성전 공사계획 설명과 기공교독문 낭독으로 동탄광림교회 건축의 시작을 선포했다.

믿음의 씨앗이 있는 곳에 선교 지경이 더 넓혀지기를

광림교회 선교정책은 광림의 성도들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동탄광림교회 건축은 본당 및 광림남교회 출석 교인 중 동탄 지역 성도들을 중심으로 본당 예배전통과



믿음의 공동체를 본 받아 섬기며 지역사회에서 선교 지경을 더 넓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광림교회 지교회들은 믿음의 씨앗이 잘 심겨진 광림의 성도들로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에서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 선교와 성전 건축은 교회의 사명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여선교회는 동탄광림교회 건축을 위해 7억 원의 건축비를 약정하고, 4월 선교마사회 등을 통해 우선 3억 원을 헌금했다. 선교와 교회 건축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이며 사명이다. 각 선교회와 위원회, 지교회들과 선교구에서도 기도회로 동참하며 동탄 성전이 하나님의 손길로 은혜롭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다.

이상희 기자

#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신명기 3장 27절)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은 안타깝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25절)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26절)고 하십니다. 모세는 오랜 세월동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지도자로서의 고독과 외로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의 두려움 등 모두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성실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준행하였음에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 가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며 영적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 첫째, 믿음의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놓인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민 20:12)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후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에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의를 높이며 스스로 반석에서 물을 낸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때입니다. 습관화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와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 내 앞의



신명기 3장 23-29절

23. 그 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4.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25.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7.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28.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불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9. 그 때에 우리가 벳브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현실이 원망과 불평을 불러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바로 그 때 참된 승리를 맛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 둘째, 거룩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정신분석학자 플리츠 볼츠는 건강한 사람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

다. 바라본다는 것은 감정과 생각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속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그 감정에 따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감정을 느끼고,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모세는 위대한 신앙인이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그의 행동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감정과 생각을 거룩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거룩함을 지키며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셋째, 온유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세가 트리바 샘에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말을 하며 인간적인 감정을 내세움으로 가나안 입성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보면, 그는 실패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그의 사명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잘 양육하고 세워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

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온유한 인물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이며, 그 의미는 ‘중용, 통제된 능력’입니다. 또한 성경에서의 온유는 내 안에 강한 충동이나 격정적인 감정을 하나님의 거룩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유한 자는 사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잘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밖으로 드러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억울할 수 있지만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기도와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아도 마지막까지 온유함으로 사명을 감당한 모세처럼, 쓰임 받는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 동탄광림교회 건축을 위한 선교바자회

## 여선교회, 5월 월례회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져



광림교회 여선교회총연합회(회장 이화열 권사)는 지난 4월 26일(화) 밀레니엄광장에서 '동탄광림교회 건축을 위한 선교바자회'를 열었다. 오전9시 김정석 담임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바자회는 오후4시까지 진행되었다.

### 3년만에 열린 야외바자회

코로나19로 인해 미니마켓 형식 등 온라인 바자회로 진행해오던 바자회를 3년 만에 야외바자회로 진행했다. 올해는 특별히 광림교회 성도들만이 판매자로 참여하는 바자회로 성도들의 기증품과 여선교회 임원들의 애장품, 개체선교회의 아나바다, 테이크아웃용 포장음식 등을 판매하였다. 판매자, 구매자 모두 동탄광림교회 성전건축에 동참하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문화의 거리와 새

신자 환영프로그램 등의 새로운 코너도 시도하며 바자회의 질을 한층 높였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시간별 경품추첨 이벤트를 실시하여 성도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끝까지 축제같은 분위기로 마무리했다.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동탄광림교회 건축에 사용된다.

이화열 권사는 "3년 만에 밀레니엄 공원에서 열린 동탄광림교회 건축을 위한 선교바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 선교와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다. 많은 분들이 동탄 성전에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재능기부와 건축바자 후원금으로, 물품으로 후원하며 동참해주고 비소식이 있는 바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번 바자회는 외부업체 초대 없이 오직 성도들의 힘

으로 하나님께 올리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응원해주신 담임목사님과 교역자, 성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동탄성전의 든든한 초석이 되는데 계속 쓰임받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했다

### 자녀를 위한 기도회

바자회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한 여선교회는 지난 5월 첫째 주 월례회 때 <자녀를 위한 기도회>의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주일을 맞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열어 350여 명이 모여 다음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번 기도회는 자녀를 주심에 감사하고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양육하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주권아래 자녀를 양육하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구별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백명순 기자

# 서울남연회 선교사회 국내 성지순례



서울남연회(김정석 감독)는 연회 참석을 위해 귀국한 남연회 소속 선교사들을 위로하고자 광림교회의 후원으로 4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여수, 증도, 군산지역 국내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타문화권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고국의 순교지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첫째 날, 각지에서 선교사들이 광림교회에 모여 기도로 출발하여 전주를 지나 여수 애양원과 손양원 목사 순교기념관을 탐방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이들의 삶과 헌신을 통해 선포되던 현장을 방문하며, 선교사들의 선교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호우주의보가 있었지만, 비가 조금씩 그치게 되어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선교사들은 순천의 국가 정원을 산책하며 삼삼오오 교제하였고, 서로의 근황과 선교 현황, 기도 제목을 나누었다.

마지막 날은 증도와 신안 일대의 전도사, 문준경 순교 기념관을 순례했다. 남도의 백합화로 불리는 문준경 전도사의 전도 열정은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았고, 수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배출해내는 열매를 맺었음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서울남연회 소속 선교사들에게도 굳센 믿음을 허락하셔서, 현장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했다.

이어서 군산 아펜젤러 순교 기념교회를 방문

했다. 조선인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아펜젤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었던 선교사였다. 그리고 대를 이어 펼쳐진 아펜젤러 가문의 선교활동은 백성을 구하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열정과 성실함이었다. 아펜젤러의 여러 가지 사연과 이야기는 곧 우리 선교사들의 이야기였으며, 그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었다. 이 시간을 통해 마지막까지 신실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선교사가 되기를 결단했다.

마지막 순서로 광림교회 '수요치유의신학' 예배에 참석했다. 광림교회 소속 선교사인 장성호 목사의 터키 선교보고를 통해 선교에 대한 귀한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예배 후 김정석 감독은 격려의 말씀과 함께 참석한 모든 선교사에게 선교지원금을 전달했다. 선교사회 회장인 인도의 김대균 선교사는 가족과 1년 이상 떨어져 있었던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연회와 광림교회로부터 큰 위로를 얻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 우간다의 신동헌 선교사는 "6년 만에 참석한 연회와 국내 성지순례를 통해 서울남연회 소속 선교사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이세 전도사(목회선교지원실)

### 포토 뉴스



#### 장애인지원

4월 24일 장애인지원일예배에서 사랑부 증창단이 찬양했다.



#### 청장년부 랫츠고 페스티벌

4월 24일 청장년부가 당근(당신의 근처) 청장마켓을 진행했다.



#### 어린이주일예배

5월 1일 어린이주일예배가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 담임목사 동정



- 4/26 트리니티성서대학원
- 4/27 서울남연회선교사회 보고예배
- 4/28 서울남연회여선교회 선교대회
- 5/1 어린이주일 대림교회 장로취임예배
- 5/3 강남지방 교역자회의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 5/4 동탄광림교회 기공예배
- 5/7 서울남연회원로장로회 영성수련회
- 5/8 어버이주일 신애제일교회 담임목사취임예배 광림남교회 청장년헌신예배 광림남교회 유아세례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 교회학교, 5월 찬양의 밤 열려

## 어린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교회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의 아름다운 콰이어가 본당을 가득 채웠다.

5월 1일 어린이 주일 저녁 예배가 본당에서 교육부 주관 찬양의 밤으로 열렸다. 초등부 학생의 맑은 솔로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하는 자 되어가 찬양단의 합창으로 울려 퍼지며 막을 연 예배는 ‘어린이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유아부부터 초등부까지 교회학교의 학생들은 인터뷰 영상을 통해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세상을 언제 만드셨는지에 대해 궁금하다”는 귀여운 질문을 던져 예배에 참여한 모두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 어진 특송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는 교회학교에서 자라 이제는 광림의 속화를 섬기는 부모들, 현재 교회학교에 속한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한 귀한 시간이었다.

소년부 소속 자녀를 양육하며 온 가족이 특

송에 참여한 김민정 집사(1교구)는 “중고등부 때 성가대를 같이 했던 오빠가 이번 특송의 지휘자로 섬기고, 학생대표는 제가 중등부 때 성가대 선생님이셨던 제 인생 멘토의 따님이에요. 여기서 함께 연습하면서 저희 아들, 저희 선생님의 자녀, 제자, 그리고 제자의 자녀까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특별하네요”라며 기쁨을 표현했다.

임재철 목사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 하리라 하시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막 10:15-16)라는 성경 구절로 주제 말씀을 전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어린이의 마음,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쁨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 그저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기뻐서 달려 나온 아이의 모습을 통해 오직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마음임을 나누었다.

예배의 자리에서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쁨의 춤을 췄던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 뛰며 춤추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에, 마지막 찬양은 다 함께 뛰고 춤추고 울동하는 시간으로 끝을 맺었다.

교회학교의 성장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 현세대에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할 때, 아이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귀한 예배의 자리였다.

위선미 기자

### 광림 사랑의집

#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 <광림노인전문요양원> ‘어버이주일’ 감사 행사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광림사랑부 친구들이 함께하는 광림주간보호센터와 예수와 주간보호센터에서 정성껏 카네이션을 만들어 보내드립니다. 작년에는 클레이로 예쁘게 꽃을 만들고, 광림노인전문요양원의 어르신들 이름을 각각 정성껏 적어주셨습니다. 올해에는 워터비즈로 카네이션을 만들고, 어르신들이 침대에 붙일 수 있도록 “○○○ 할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카드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어르신들이 함박웃음을 지으십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랑부가 어버이주일에 오

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직접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밝은 웃음과 축복이 가득한 그 시간이 빨리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그늘 속, 요양원은 면회나 외출이 안 되어 어르신들도 많이 아쉬워하십니다. 직원들이 자녀분의 자리를 대신해 ‘어버이날 행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카네이션 머리띠를 만들어 쓰고, 재미난 율동으로 어르신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은 가렸으나 재미난 분장과 노래로 ‘폼바’를 연습하여 공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크게 웃으시고, 함께 어깨춤을 추시는 모습에 모

두가 즐거웠습니다. 어르신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어버이 은혜’를 부르며 큰절을 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코로나 속 부모님을 향한, 자녀를 향한 만남은 사전에 예약된 영상통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화면 속 자녀들의 모습을 쓰다듬으시며, 그리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면회금지에 따른 가족들의 요구증가를 고려한 정부 방침에 따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2일~ 5월 22일(3주간)까지 대면 면회가 시행

됩니다. 가족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께, 비록 짧은 20분이지만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사회 전반적인 방역지침 완화가 입소 어르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볼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 어르신들의 요양원 입소도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입소를 희망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시설등급(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후 상담을 통해 입소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백신접종 및 확진 여부와 요양원의 별도 격리실에 대기(5일)하신 후 2회의 PCR 검사결과에 따라 입소가 가능합니다. 까다로운 입소 절차에 따라 어르신 모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계시는 공동생활시설이므로 철저한 예방 수칙이 요구됩니다.

광림노인전문요양원의 어르신들과 직원 모두를 위해 큰 사랑과 기도해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문의: 033-263-3995-7

전선옥 목사(광림사랑의 집)

# 생명줄 던져라! Throw Out The Life Line

## 광림교회 청년부 상반기 총력전도를 마치며



광림교회 청년부는 이번 5월 1일(주일)까지 4주간의 프로젝트로 총력전도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부는 '생명줄 던져라! Throw Out The Life Line'라는 주제로 전도대상자와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회공동체와 떨어진 속회 내 부진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며 초대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력전도에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전도 전략인 식탁교제를 적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대접하시며 환대와 사랑을 느끼게 하셨던 것처럼 속회에서 VIP를 위해 환영하는 장소와 식사를 준비하여 대접함으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전도 방법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총력전도

D-day인 5월 1일 주일을 위해 하루 전 4월 30일 토요일에 속회에서 준비한 공유 주방으로 VIP를 초대하였고, 공유주방의 초대를 발판삼아 주일 5부예배와 속회로 안내했습니다. 청년부의 각 교구들은 5부예배 전후로 교구 모임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VIP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고,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 못했던 청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로 나오게 되면서 함께 믿음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과 주일 양일에 걸쳐 공유주방을 통해 VIP를 섬긴 속회들의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교구환영행사를 진행한 1교구장 지영호 형제

는 "교회 내 식사가 가능해져 급하게 준비한 행사였지만 오랜만에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행사를 준비할 수 있어 기쁘고 부족한 준비에도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라고 알렸습니다.

4교구 이서은 속장은 "청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모든 것이 나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지만 더 선하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가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새신자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라고 전했습니다.

4교구 정진호 속장은 "코로나로 예배와 떨어진 속원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해 이번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참된 이유를 알게되었고 관계성회복과 하나님께받은 사랑을 속원들에게 흘러보낼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총력전도를 통해 교회로 찾아온 청년 VIP들이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 신앙 간증

####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2011년 20살 태백을 시작으로 21살 단양동-한려, 22살 괴산, 23살 이천, 24살 당진, 25살 전북서남, 26살 대전서북, 27살 제주, 28살 남양주에 교육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해외선교로는 2015년 필리핀, 중국 2016년 필리핀, 중국 2018년 필리핀 2019년 이스라엘 선교도 갔습니다. 학생 때나 군대에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매년 시간을 열어주셨고 그 때 마다 순종하며 동참하였습니다. 제 삶을 선교 없이는 설명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하는 즐거움, 참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광림 공동체의 힘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 없기에 다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마음이지만 순종하고 동참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처럼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사역에 두고 살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교 자리에서 금전이 없을 때 금전을 채워주셨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을 때 열어 주셨습니다.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사역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챙기지 못한 나의 삶의 모습, 놀지 못하고, 돈을 모으지 못하고, 남들처럼 취업을 위한 준비도 하지 못하고, 선교 간다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감정을 소모하고 상처 받고 기도하면서 우는 초라하게만 보이는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픈 자들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국엔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천재보다 예수님을 아는 바보로 살겠노라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청년의 시간이 10년 넘게 흘렀습니다. 매번 삶을 돌아보면 놀라운 건 제가 아파했던 부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저를 강하게 만들고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과정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이 제게 조금씩 들어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끝으로 요즘은 하나님의 더 놀랍고 위대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삶을 퍼줄을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퍼줄이었고 더 놀라운 사랑과 섭리였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깨닫는 삶을 살아갈 소망합니다.



✚ 정진우 속장(청년부)

## 교회학교, Shining World 어린이 주일 연합예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막 10:14)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는 예배가 어색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부활절을 기점으로 광림교회 교회학교 예배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광림교회 교회학교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Shining World 어린이 주일 연합예배를 준비하였다. 미취학부와 아동부로 나뉘어 진행된 예배에는 많은 어린이가 예배의 자리에 모여 기쁘게 예배 드렸다.

유치부 장정숙 부장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미취학 아동이 모여 연합예배를 드린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하였습니다"라며 영·유아·유치부 연합예배의 감동을 전하였다.

영·유아·유치부 주일 연합예배는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A홀에서, 아동부 주일 연합예배는 웨슬리관 장친홀에서 드려졌다. 2년 전 어린이주일에는 시온 쉐린지를 통해 어린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만으로 만족하였고, 작년에는 시온 페스티벌을 통해 교회학교 예배 참여를 독려함에 그쳤지만, 이번 어린이 주일 연합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 회복의 기쁨을 나누었다.



영·유아·유치부에서는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을 위하여 포토존 사진촬영, 경품추첨과 선물을 나눠 주는 이벤트를 준비했고, 예배 후

에는 가스펠매직쇼, 레이저쇼, 버블쇼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아동부에서도 포토존 사진촬영, 가스펠매직쇼와 푸짐한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하며 선물을 나눠 주었다.

유년1부 권후연 어린이는 "오늘 매직쇼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경품은 받지 못해 아쉬웠지만, 언니, 오빠, 친구들과 함께 모여 즐겁게 예배드려서 기뻐요"라며 연합예배 참여 소감을 전했다.

초등부 최유리 교사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연합예배를 드리니 은혜가 배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교사로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새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교회학교가 더 많은 아이들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라며 교회학교의 발전을 위한 소망을 밝혔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서 사회 구성원으로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되려면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2년 반동안 잘 모이지 못했는데 기지개를 켜고 다시 모여 어린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 박희윤 기자

목회현장

선교사들의 안식과 재충전을 위하여



이상훈 목사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

아펜젤러세계선교센터(이하 센터)의 목회는 선교사들의 안식과 재충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선교사는 80개국 1,350명이며, 매해 400여명의 선교사들이 일시 귀국하여 선교보고, 회의참석, 건강검진과 치료, 후원 모집 등의 이유로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 체류하게 됩니다.

그동안 마땅한 숙소가 없어 귀국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던 선교사들은 센터를 마련해 주신 광림교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1954년 한국전쟁이후 폐허가 된 한국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미연합감리교회 인디애나연회의 레인즈 감독이 지원단장을 맡아 감독편지를 마련하고, 교회를 재건하고, 특히 농어촌목회자와 성도들의 자녀교육을 위해 기숙사(인우학사)를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노후화된 건물은 당시 김선도 감독님과 광림교회 후원으로 재건축 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원학생들의 감소로 더 이상 기숙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유지재단이사회에서 지난해 4월 센터로 용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림교회 후원 현금 22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920평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예배실(60평, 145석), 도서실, 세미나실(3곳), 게스트룸(29개), 세탁실, 사무실, 공동식당, 주차장(20대)을 구비하고 지난해 11월 18일 봉헌 및 개관하였습니다.

지난 5개월간 22개국 64가정 86명이 다녀가거나 머물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리모델링 이후 광림교회, 세션협 화원교회, 서울남연회 등을 통해 각방의 비품을 구비했으며, 운영에 있어서는 교단 사무국과 연회본부, 선교사회 특히 광림교회 성도님들의 세심한 후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후원은 선교현장에서 질병, 갈등, 언어문제, 문화충격 등으로 지친 선교사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경건성을 유지하며, 사역을 더 잘하도록 개발하는 일을 지원하는 선교사멤버케어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센터에서는 선교사회와 교류하며 매일 직원기도회에서 파송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매월 1회 다양한 교육과 예배 및 간증의 시간을 통해 선교사들이 새 힘을 얻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70여년 전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건립된 장소가 해외에서 사역중인 한국선교사들을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From missionary to missionary)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는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기도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감리회선교사들 섬김에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서교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림서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한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5월 1일은 어린이주일을 맞아 부서별 어린이주일 페스티벌, 달란트 잔치 등 민음의 다음세대인 교회학교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

습니다. 5월 8일은 어버이주일을 맞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모든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75세 이상 성도님들께 감사의 고백

을 전하였습니다. 5월 15일은 남선교회연합모임 '우리 다시 함께'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22일과 5월 29일은 교사와 지도자 모임을 갖습니다. 영혼을 위해 날마다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지구장, 속장, 선교회장, 경조회 임원 등 각 속회와 선교회, 기관들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 광림서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감사, 축복의 교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조아라 전도사(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풍성한 축제의 시간, 선교바자회



할렐루야. 북교회 마리아1 선교회장 김보연 집사입니다. 4월 26일 선교바자회(동탄광림교회 건축을 위한)에 동참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상황 속에,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바자회였기에 기대반, 염려반 기도하며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북교회 역시 이러한 선교 바자회를 통해 모여진 귀한 현금으로 아름답게 지

어진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품목으로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이신재(정해자) 성도 가정에서 한우 육개장 & 김치찌개 밀키트를 지원해 주셨고, 강정은(김진호) 집사 어머니께서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마리아 선교회원들 대부분 젊은 엄마들이기에 워킹맘도 많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 와중에도, 주중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가렌드와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바자회 당일 비 소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이 무색하게 너무나 화창한 날씨를 선물로 주셨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축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탄광림교회 건축을 위하여 북교회 마리아1,2 선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마리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보연 집사(광림북교회)

총력전도주일

복음의 기쁜 소식 전한 총력전도 주일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 24일(주일), 총력전도주일을 맞아 밀레니엄광장에는 선교구별 형형색색의 전도 파라솔이 설치되고 새신자를 맞을 준비로 분주했다. 대규모로 진행된 이번 <4월 총력전도 행사>에는 많은 광림교인들이 참여해 모처럼 교회에 활기가 넘쳤다.

예배시간에 맞춰 삼삼오오 들어오는 새가족을 맞는 환영 인사가 선교구별 부스마다 가득했으며 새신자 등록카드를 적느라 북적이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손길이 따뜻한 봄바람처럼 은혜로웠

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잠시 일상은 멈춰서도 광림교회의 예배와 전도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4월 총력전도 기간 동안 교회에 처음 참석한 새가족들은 인도자와 함께 예배를 드렸고, 김정석 담임목사의 영접기도와 광림교인들의 축하 속에 새가족위원회로 인도되었다. 이후 선교구 목사와 전도사, 양육위원들과 함께 교회와 예배에 대해 배우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세례를 받도록 양육 받게 된다.

복음 증거에 앞장서 온 광림교회는 앞으로도 선교구별 총력전도 행사를 개최하며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유병권 기자

사랑부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Together!’



지난 4월 24일(주일) 오전 11시 장애인 주일을 맞아 광림교회 사랑부에서는 <2022 사랑부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를 드렸다. 사랑부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드리는 사랑부 연합예배는 설레임과 반가움으로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다.

2019년부터 코로나팬데믹으로 대면예배와 비대면예배가 병행되었지만 사랑부 학생들은 함

께 모여 맘껏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연합예배는 애타게 기다리던 시간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Together!’라는 주제로 드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성산 목사(사랑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인공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작품입

니다. 혼자가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사랑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사랑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다.

예배를 마치고 2부 찬양축제의 시간에는 마하나임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하여 자원한 사랑부 학생들이 그동안 연습해온 찬양을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영적 감동의 울림 준 <사랑나눔중창단>**  
장애인 주일을 맞아 광림교회 9시와 11시 주일 대예배 헌금특송으로 <사랑나눔중창단> 사랑부 소속 김경우, 전지원, 정관후 성도가 ‘행복이란 찬양을 했다. 성도들의 영혼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의 찬양이 성전에 울려 퍼졌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라고~~~’

예수님 형상을 닮은 축복의 통로

사랑부는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40분 교사기 도회가 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도 했지만 교사들이 함께 모여 사랑부를 위해 기도한다. <사랑부 보이는 라디오>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사랑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접속하여 좋아하는 찬양이나 기도 제목 등을 댓글로 올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다.

우형진 장로(사랑부 위원장)는 “31년 전, 광림교회에 사랑부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사랑부가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앞으로 더욱 주님께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자로 세워져 기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정순 기자

“방문 틈 사이로 비치던 어머니의 기도가 제 삶을 이끌어 주셨어요. 방황의 시간들을 붙잡아주셨고 낙심의 순간이면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김창훈 성도(20교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과장)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제26회 올해의 장애인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 성도는 “주님이 허락하신 영역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큰 격려라 생각합니다. 가족과 주변 분들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에 장애인 재활 전문가의 꿈을 키워왔고, 다른 장애인 들 또한 비전을 품고 이를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헌신의 사랑으로 장애의 벽 이겨내

김창훈 성도는 근육에 힘이 점점 없어지는 희귀 난치성 질환인 진행성 근이양증을 앓고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이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초·중·고 12년을 일반 학교에서 마쳤어요. 전교에서 유일하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었지요. 당시엔 지금처럼 장애인 도우미나 활동보조인이 없었고 부모님은 학교 데려다 주시는 것까지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교실까지 계단 오르기 등 기본적인 학교생활에서부터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휠체어를 들어주었고, 3~4층에 있는 음악실, 과학실까지 이동을 도와주었어요. 친구들이 내민 손을 잡으며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했어요. 특히 네 살 터울의 형(김태중 집사)이 늘 저를 업고 다녔고, 든든한 형이 곁에 있어서인지 또래 친구들과 놀람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대학(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에 입학했을 때는 어머니께서 학교가 있는 천안으로 이사와 함께 생활했고, 늦깎이 대학생인 구세군

“장애가 있어 더 감사합니다”  
김창훈 성도, ‘제26회 올해의 장애인상’ 대통령상 수상



김창훈 성도와 함께한 형 김태중 집사

교회 목사님이 함께 수업을 들으며 4년 내내 아버지처럼 돌봐주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행복하는 삶

“장애가 있다 보니 늘 부모님과 함께 대예배를 드렸고 성인이 되어서도 청년부에 가지 못했어요. 가족 이외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던 거 같아요. 하지만 좀 더 일찍 용기를 낼 걸,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청년들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5부 예배 찬양단 헬퍼로 섬기며 예배의 참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청년부 해외선교나 국내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늘 후원으로 만족해야만 했어요. 저로 인해 선교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 같아

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2018 제주 선교에 참여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망설여졌지만 순종했고, 형이 휴가를 내서 함께 참여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제 생각과 달리 저는 어르신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었고, 양식 셰프인 형은 파스타를 만들어 대접했어요.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에도 가고 샤워도 하고, 내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일하셨고 감사의 마음이 밀려왔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꼭 줘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경제활동이 삶을 지탱하는 동력이지만 장애인에게 직업 재활은 궁극의 목표입니다.” 김창훈 성도는 대학졸업 후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며 장애인 직업 재활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런 경력

을 바탕으로 200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입사했고 현재까지 21년을 근속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일하고 있다. 대기업, 공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개척하고, 직접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직업 전문학교에 연결을 도왔다. 특히 제빵·외식 분야에서 장애인 고용 모델을 제시하며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에 크게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김 성도의 도움을 받아 사회에 자리 잡은 장애인은 500명이 넘는다.

현재 직장 내에서 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일상생활조차 힘겨운 그를 20년이 넘는 시간, 단 한 번의 쉽다 없이 지켜주셨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얼마 전 골육종으로 다리 절단 수술을 앞두고 있는 조카 홍준이와 통화를 했어요. ‘삼촌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돼요.’ 절망가운데 있을 거라는 내 생각과 달리 수화기 너머 들리는 아이의 평온한 목소리에서 주님의 음성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4:7)

“제가 장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장애로 인해 주님과 더 친밀히 대화하고, 작은 일상도 더 치하하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선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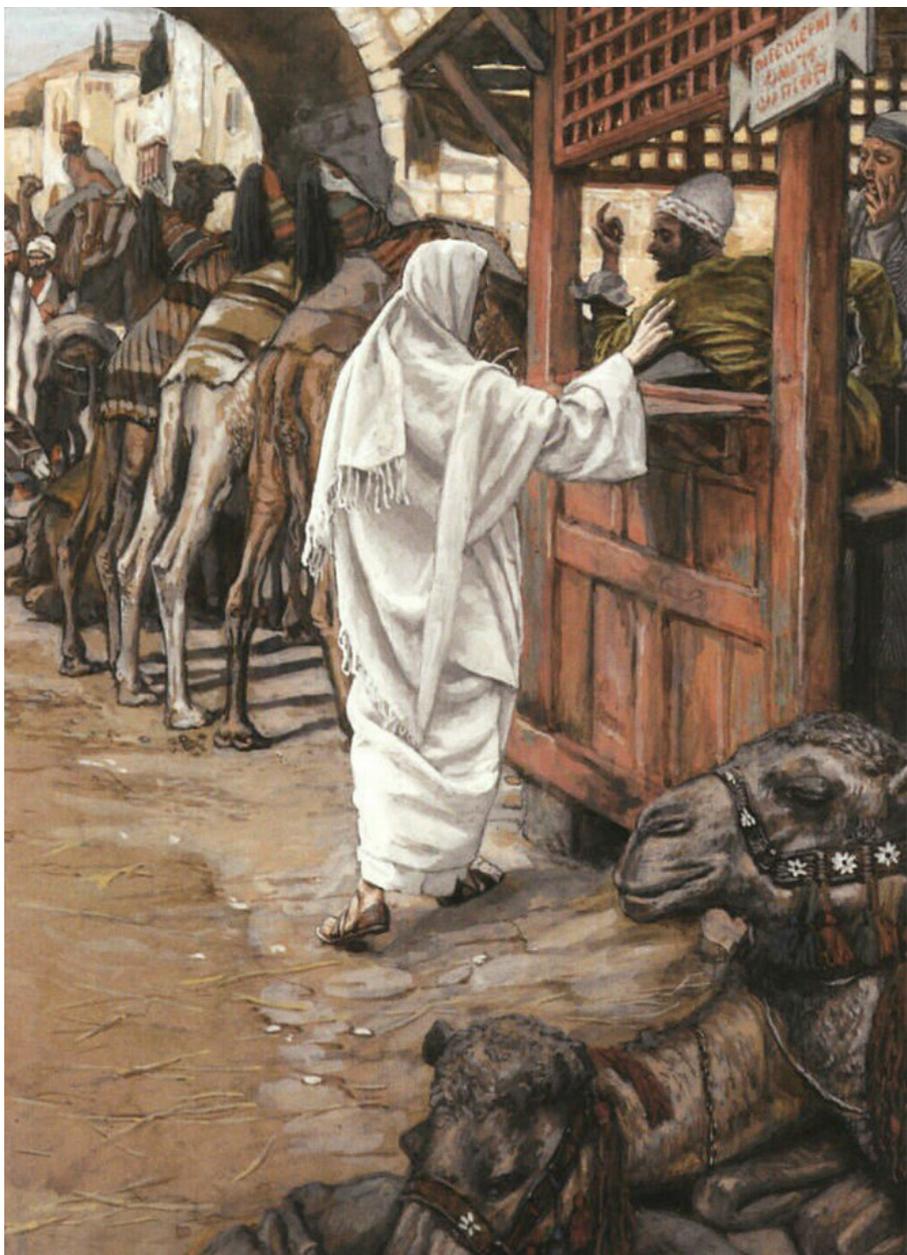
#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9

## 복음 사역을 시작한 예수 마 4:19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公生涯)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예수는 천국이 곧 올 것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또한 제자가 될 사람을 부름으로써 사역을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다가 어부인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로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예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 그는 형제인 베드로도 예수에게 인도하여 제자가 되었다. 두 형제는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나섰다. 또한 두 형제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았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잡고 있었다. 예수의 부름을 들은 그들은 곧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름에 단호히 따라나선 네 어부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

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 나갔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당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설교하였다. “우리는 특별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잘못된 것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소식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자신이 공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 더구나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유로 예수의 말조차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나사렛의 목수라고 멸시하며 동네 밖으로 쫓아 버리기까지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을 가르쳤다. 처음에 네 어부를 부르신 것처럼 이번에는 세무 관리를 하고 있는 마태를 만나 말하였다. “네가 하는 일이 즐거운가? 그렇지



않다면 나를 따르라.” 당시 세무 관리직은 경멸을 받는 직업이었다.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로 특정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위임받아 세금을 거둔 뒤 정해진 액수만큼을 나라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 수입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어 사람들에게 엄청난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세리인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비난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의인이 아닌 악인 즉, 죄인을 위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며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한다. 예수의 공생애 사역은 열두 명의 제자를 찾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예수는 홀로 산에 올라가 밤을 지새우며 기도한 후 열두 제자를 선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다대오라고도 불리는 유다, 그리고 빌립, 바돌로매, 도마, 세리 마태, 가나안 사람 시몬, 가롯 유다다.

◀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_ 유대인들이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한 것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마태에게 다가가 '나를 따르라'하고 명하였다. 이에 순종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제임스 티소의 작품.

▲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_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시몬)의 배에 올라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친 후,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것을 명한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대로 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 기적을 체험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다. 또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호숫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곳인 자신의 배에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즉 빈 그물이 채워지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는, 그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했으며, 자기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와 동고동락하면서 섬긴 인물이 되었다. 제임스 테일러 히우드의 작품.

▶ 광림뉴스레터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